



광주 새 아파트 7588가구 쏟아진다

광주 등 지역 5대 광역시에서 올 하반기(7~12월) 6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대선으로 미뤄졌던 물량이 밀려 나오는데 지방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분양사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총 36개 단지 5만9512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것이지만 지난해 동기(2만6221가구)보다 126%(3만3291가구) 증가한 수치며 2000년 이후 역대 하반기 물량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광주가 7588가구로 55% 증가한 것을 비롯,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분양 물량도 모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 3만2879가구(312% 증가) ▲대구 6384가구

전년비 55% ↑...하반기 5대 광역시 6만여가구 126% 증가 부동산 규제 전 분양 서둘러...미분양 우려·금리인상 변수

(80% 증가) ▲대전 6471가구(69% 증가) ▲울산 6190가구(2.8% 증가)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9월 중흥건설이 '광주 계림8구역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계림동 재개발사업으로 총 1168가구가 들어선다.

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지만 현대건설이 광주시 북구 신원동 지역주택조합 1개 단지 1544가구에 135가구를 하반기에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 광역시 단위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방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통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에는 주정심을 통해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6·19 부동산대책 발표에 의해 청약 대상지역으로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추가 지정된 부산과 더불어 전매제한에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지방 5대 광역시가 주 타깃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에 오랫동안 '분양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분양시장이 양극화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단지 특성이나 브랜드에 따라 분양 성패가 갈리는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으며 이에 따라 미분양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많았다. 또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부 정책의 변화와 이에따른 금리인상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 부동산 과열 지역에도 빠르면 10월 말경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수요자들도 개정안 적용 전에 입지, 발전 가능성 등을 갖춘 단지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96.00 (+13.90)
- ↑ 금리 (국고채 3년) 1.76% (+0.01)
- ↓ 코스닥 656.01 (-1.85)
- ↑ 환율 (USD) 1151.10원 (+1.60)

2396...코스피 증가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11일 2390대를 회복하며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2382.10)보다 13.90포인트(0.58%) 오른 2396.00에 장을 마감했다. 이로써 코스피는 지난 6월 29일(2395.66) 이후 8거래일 만에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전일 대비 4.32포인트(0.18%) 오른 2386.42에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11시 12분 2393.47까지 올랐다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웠고, 오후 3시 20분에 2396.46까지 고점을 높였다 2396.00에 장을 마치고 증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견인했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243만3000원)보다 1만7000원(0.70%) 상승한 245만원에 마감,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전남중기청 선정 올 수출 유망기업 29곳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주)헤드라인 등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수출유망 중소기업 29개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정 기업은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광주전남 중기청이 지난 6월 53개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출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력, 재무·혁신성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광주·전남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2년 간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23개 수출 지원기관으로부터 자금·보증 우대지원 등 총 91개 항목에서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29개사는 작년 상반기 20개사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현재 지역 내 지정 유망 수출유망 중소기업은 신규 지정 기업을 포함해 총 92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김대성기자bigkim@



싱가포르 국제 선물용품·가정용품 전시회에 참가하는 지역 공예품 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광주상의 브리핑룸에서 제품설명회를 연 뒤 해외시장 판로 개척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진공예 김종만 대표, 진다리 필공방 안철환 대표, 다락방아트센터 오은신 대표, 3D라이팅 김용 부사장.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의 우수 공예품 싱가포르 진출

4개社 국제 선물·가정용품 전시회 참가...수출 상담 진행

광주지역 우수 공예·예술 전문기업들이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한 시장 개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우진공예, 진다리 필공방, 다락방아트센터, 3D라이팅 등 4개 업체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싱가포르 국제 선물용품, 가정용

품 전시회에 참가해 전세계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나서는 기업들은 광주상의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들이다. 기업별 참가비의 80%와 참가자 항공료의 70%, 전시물품 편도 운송료 100%, 현지인어 통역비 100% 등이

지원된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5번째로 큰 규모의 수출대상국이자 FTA 체결국으로 해마다 무역거래가 늘고 있으며 한류 확산으로 한국상품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의 대표 물류허브로 6억 인구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잠시한 아이디어와 우리 고유의 전통산업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매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동남아 710만달러 수출 계약

일본 등 4곳서 수출상담회...LED 유망 품목 부상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최근 일본과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에 LED조명 및 광통신 관련 회원사 16개가 참가, 710만달러(일본 350만달러, 동남아시아 36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열린 일본(지난 3~4일)과 동남아시아(베트남 3~4일, 인도네시아 6~7일) 수출상담회는 지난 6월 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7 국제광융합 EX-PO에 참여한 바이어와 그간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구축해온 DB 내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후속 상담 형식으로 진행돼 산으로 한국상품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의 대표 물류허브로 6억 인구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잠시한 아이디어와 우리 고유의 전통산업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매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향후 일본 시장의 경우 OLED조명, 식물성장용 LED조명, LED면조명, 태양광 LED가로등과 같은 특수 조명과 광통신 제품이 수출유망 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측은 전망하고 있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진성 바이어 확보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현지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 등 유기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상담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광관련 유망기업의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명당찾아 삼천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터(양택)와 가장 좋은 묘터(음택)을 찾아줍니다!

(정호) 안 성 준 010-3342-6338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렌트 이영 후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www.ipalg.co.kr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디나와의 플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